

창세기 다섯번째 메일

홍수에서 살아 남은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바친 것이다. 하나님은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다고 했다. 아벨도 자신이 기른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았는가? 도대체 누가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피의 제물을 바치게 한 것일까?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에 연관된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라고 하신 말씀이다.(히 9:22)

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죄를 범한 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에덴에서 쫓아 내실 때 '가죽 옷' 을 해입힌 사건은 (창3:21) 하나님께서 직접 손에 '피' 를 묻히시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암시한다. '가죽' 을 얻었다는 것은 '동물의 희생' 이 있었다는 뜻 아닌가? 그것을 옆에서 직접 보았던 최초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였을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고 죽은 아벨의 뒤를 이어 '피의 제사' 를 지켜오던 '셋' 은 노아가 태어나기 몇십년 전에 이미 죽었다. 그러나 셋의 후손인 에노스, 게난, 에녹, 므두셀라, 라멕(노아 아버지) 모두가 '피의 제사'를 지켜왔다. 노아도 그렇게 배우고 깨달은 것이다.

인간의 구원이 '피' 에 달려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번의 피의 제사를 위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 를 흘리신 이유는 매우 명백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배가 오히려 축제로 바뀌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다. 바로 보이는 '피' 가 없어서 그렇다.

사람에게 '피' 는 생명이다. 당신의 몸에는 어떤 '피'가 흐르고 있는가? 인간 육신의 생명도 '피' 에 있다고 하는데 (레17:14) 하물며 당신의 영혼속에 흐르는 피는 깨끗한

가? 육신의 ‘피’ 도 깨끗하지 않고 끈적하고 지저분하면 모든 병의 근원이 되듯이 사람의 영혼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바뀌기전에는 결코 깨끗해 질수 없다.

우리의 영혼과 몸에 흐르는 피가 지속적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을 비우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야만 한다. 성령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아멘!